

## [리뷰]큐어, 금요일의 황홀경...안산밸리록페스티벌

등록 2013.07.27 02:48:58 | 수정 2016.12.28 07:49:35



【안산=뉴시스】이재훈 기자 = "만약 월요일이 우울해도 겁나지 않아 / 화요일이 암울하고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/ 목요일에는 너를 생각하지 않아 / 금요일에는 사랑에 빠져~♪"(I don't care if Monday's blue / Tuesday's Grey and Wednesday too / Thursday i don't care about you / It's Friday i'm in love)

뜨거운 여름. 록 페스티벌의 포문을 여는 금요일 밤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까.

결성 37년 만에 처음 내한한 영국의 전설적인 고딕 록 밴드 '더 큐어'가 26일 밤 경기 안산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의 빅스테이지에서 '프라이데이 아임 인 러브(Friday I'm In Love)'를 부르자 섬 자체가 들썩였다.

이날을 고대한 팬들은 강충강충 뛰며 목 놓아 노래를 따라 불렀다.

사실 1979년 첫 정규 앨범 '스리 이매지너리 보이즈(Three Imaginary Boys)'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큐어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지는 않다.

그러나 30~50대 중 소숫적에 음악 꽤나 들었던 이들은 큐어의 '러브송(Lovesong)' '인 비트윈 데이스(In between Days)' '럴러바이(Lullaby)' '레츠 고 투 베드(Let's Go to Bed)' '보이 돈트 크라이(Boy Don't Cry)' 등을 들으며 설렘을 느꼈다.



이날 헤드라이너였던 큐어는 이날 이 곡들을 포함해 장장 3시간 넘게 공연하며 35여 곡을 들려줬다. 단독 공연에서는 50~60 곡은 기본인 이틀이다. 오죽하면 공연 스태프가 앰프의 플러그를 뽑으면 어쿠스틱으로 공연한다는 소문까지 나돈다.

이들의 이런 설의 실체와 저력을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공연이었다. 3시간 내내 흐트러짐 없이 묵묵하게 노래하고 연주했다.

특히 진한 화장에도 귀여운 인상이 한껏 묻어난 보컬 로버트 스미스(54)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쉼 없이 쉼 없이 쉼 없이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여러 개의 기타를 바꿔가며 노래를 했는데 어느 기타에는 태극기를 비롯해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칠레, 브라질 등 큐어가 공연한 국가의 국기가 붙여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.

큐어에 앞서 공연한 그린 스테이지에서 공연한 영국 런던 출신 일렉트로닉 트리오 '더 엑스엑스'(The xx)는 안개 낀 현장의 분위기를 안성맞춤이었다. 'vcr' 등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곡들이 록 페스티벌의 밤을 낭만으로 물들였다.

아기자기한 펑크록을 하는 뉴욕 출신 인디록 밴드 '뱀파이어 위켄드'는 '화이트 스카이(White Sky)'와 '야 헤이(Ya Hey)' 등의 히트곡으로 록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.



이밖에 듀오 '봄여름가을겨울', 모던록밴드 '데이브레이크', 엠넷 '슈퍼스타K 4' 우승자 로이킴(20)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달궜다.

주최 측인 CJ E&M 음악사업부문(대표 안석준)에 따르면, 이날 입장객은 총 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.

28일까지 지난 2월 제5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'베스트 댄스/일렉트로닉 앨범'을 수상한 미국의 일렉트로닉 뮤지션 스크릴렉스(25), 영국의 록밴드 '스테레오포닉스'의 '타코타', '슈게이징의 거장'인 아일랜드 더블린의 얼터너티브 록밴드 '마이 블러디 밸런타인', 제5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'올해의 노래'와 '올해의 신인' 등 주요 2개 부문 상을 거머쥔 미국 인디 팝 밴드 '펀. (fun.)',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록 밴드 '포올스' 등이 공연한다.

총 5만여명 이상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.

realpaper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